

“전북, 아시아 AI 신도시로 발전시킬 것”

‘도지사 출마’ 민주 안호영 의원, 현대차 새만금 투자 계획 기반 전북 미래사회 시스템 확장 방안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 미래사회 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기반으로 전북을 ‘아시아 AI 신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의원은 5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의 ‘AI 수소 시티’ 구상을 전북의 미래 사회 시스템으로 확장한 ‘아시아 AI 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이 발표한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에 대해 “전북의 산업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투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형 국가 성장 국정 철학’과 전북에 대한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이 20대 국회의원추진해 온 새만금 재생에너지, 원주 수소특화산단 전주·원주 수소 상용차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수소경제 벨트 전략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약 6.6km(약 20만 평)에 피지컬 AI와 수소 에너지가 결합된 미래형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공 플랫폼에서 생산된 수소를 도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순환 시스템과 함께 교통·물류·안전 등 생활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 계획을 기반으로 전북 전체의 미래 도시 전략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단순한 산업 인프라를 넘어 AI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5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의 ‘AI 수소 시티’ 구상을 전북의 미래 사회 시스템으로 확장한 ‘아시아 AI 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이 도시 설계와 복지·환경·교육까지 통합되는 ‘인간 중심 AI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AI 국가 전환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 새만금 수변도시에 AI 공공의료 캠퍼스를 구축해 의료 기본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의 연산 능력을 활용해 주민 건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질병을 예측하는 ‘지능형 돌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도시 운영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트

윈 도시를 구축해 교통과 안전, 환경 등을 지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로봇 제조 클러스터에서 생산된 로봇이 배송과 방범, 청소 등 도시 서비스를 수행하는 피지컬 AI 도시도 구현할 계획이다.

교육과 일자리 측면에서는 AI 캠퍼스를 통해 교육과 채용을 연계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전북 청년들이 신도시에서 배우고 바로 취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북의 강점 산업인 농생명·문화·관광과 AI 기술을 결합하는 융복합 전략도 추진한다.

김제와 부안 일대에는 ‘AI 농생명 단지’를 조성하고, 수변도시에는 ‘AI 콘텐츠 벨트’, 고군산군도에는 ‘AI 해양 레저지구’를 조성해 지역 산업과 미래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나아가 새만금 AI 도시를 세계 최초 ‘AI-RE100 인증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100%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과 AI 기반 전력망 운영을 결합해 글로벌 표준 모델을 만들고 이를 동아시아와 중동 등 해외 도시 개발에 수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사민 가운대)이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

“익산 대전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익산시장 출마 선언 경제·도시·삶의 대전환 등 발전 전략 제시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대전환”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최 전 차관은 이날 “익산은 지금 권력 중심의 도시로 남을 것인데, 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의 도시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익산의 현실에 대해 “청년 인구 감소, 구도심 상권 위축, 산업 구조 정체 등은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 문제”라며 “법질식 처방이 아니라 산업과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익산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속에서 익산이 성장의 중심축에 설 것인지, 번두리에서 머물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지역에 약 9조원 규모의 전략 투자가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이 국가 전략을 익산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할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차관은 “익산의 경제 영토와 산업 영토를 넓혀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익산을 흐름을 지켜보는 도시가 아니라 성장의 물줄기를 선도하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전 차관은 시민 참여형 선거 조직인 ‘최정호 익산 대전환 시민연대 캠프’ 출범을 선언했다.

그는 “이 조직은 단순한 선거 조직이 아니라 청년, 소상공인, 농업인,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시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점검하는 시민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차관은 익산 발전 전략으로 △경제 대전환 △도시 대전환 △삶의 대전환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대전환 분야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완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개발과 연계해 익산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도시 대전환 분야에서는 교통과 물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익산역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사·문화 자산을 디자인과 미디어 산업과 결합해 관광과 체류형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삶의 대전환 분야에서는 돌봄과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어르신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배당’과 ‘햇빛배당’ 정책을 통해 시장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기자

‘내란 동조’ 의혹에 반박하는 전북 공노조... 진화나선 이원택 의원

전북공노 “도청사 폐쇄 관련, 사실과 다른 왜곡... 즉각 중단해야” 이 의원 “공직자 명예 훼손 의도 없어... 본질은 김 지사 진실 규명”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자신들을 ‘내란 부역자’로 규정하는 정치적 공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 이하 전북공노)은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제기된 ‘12·3 내란의 밤’ 도청 폐쇄와 관련한 내란 동조 의혹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공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참담함과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한번 ‘내란 동조’ 의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왜곡인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일부 정치권과 단체에서 제기된 의혹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선량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북도 공직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먼저 야간 청사 폐쇄가 ‘정례적인 행정 업무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공노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시행되는 야간 청사 폐쇄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보안과 시설 관리 차원의 일상적인 절차”라며 “특정 지시나 계엄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불법 계엄 동조나 내란 부역으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왜곡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의 밤’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은 현장을 지킨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치적 공방으로 진실을 가릴 것이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위대한 채 정치적 공세만 이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을 향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도청 공직자 여러 분께 드리는 마음의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발언이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청 공직자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할 이유도 의도도 없다”며 “이번 문제의 본질은 김관영 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한 거짓 해명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청과 시청에서 공직자들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문제 제기는 공직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일방적 추정이거나 주관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식 문서 기록과 언론 보도 등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11일 임시회 개최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를 앞두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한 준비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검토를 진행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개선과 제도 보완과 현장 조치 이행 여부를 살피고 있다.

또한 명시·사고 이월 사업과 관련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지원 사유의 타당성, 향후 추진 일정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들과 실무 협의가 가며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시민고충처리위’ 신설 등 전주시 민원서비스 개선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3대 혁신 방안 발표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5일 전주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주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전국 하위 30% 수준의 평가

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주 관련 민원은 2023년 10만 469건, 2024년 11만 8,009건, 2025년 13만 2,4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전 도의회 의장, 전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는 국주영은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을 사퇴하고 5일 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전을 공식화했다.

국주영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관 등록을 마친 후 전주시청 기자회견을 방문해 “지난 20년 동안 시민의 결



는 ‘AI 민원 플랫폼’ 구축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을 지켰던 지방의원 국주영은의 공감정치를 이제 전주 시장 전제로 확대해 전주의 담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주영은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의 핵심 슬로건으로 “전주를 전주답게, 시민을 살기 좋게!”를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내가 만드는 전북의 미래’

민주 도당, 도민 공약 제안 31일까지 접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내가 만드는 전북의 미래 공약 제안’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공약 제안 접수는 지역 현안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 참여를 통해 신뢰 기반의 당 정책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참여형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제나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안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거리 현수막에 부착된 QR코드, 민주당 전북도당 홈페이지

배너 QR코드 캠프드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속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약 접수 분야는 산업, 문화·체육·관광, 농업, 보건·복지, 도시·교통·주거, 교육·청년·여성, 노동경제·일자리·소상공인, 환경·안전, 법률·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접수된 제안은 정책공약개발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은 향후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책공약개발TF 총괄위원을 맡고 있는 이동기 교수는 “이번 도민 공약 접수는 전북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설계하는 ‘함께 만드는 선거 실천의 일환’이라며 “도민들의 목소리가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상곤 신임 전북선관위 제4대 위원장 선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김상곤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제4대 전북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제26기)했다.

1997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로 입관한 이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지원장,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날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였다.

김상곤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제26기)했다. 1997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로 입관한 이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지원장,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날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이만호 기자